



제1장 시부(詩賦)

제1절 시(詩)

題郡齋¹⁾ (군재에서 쓰다)

金黃元²⁾ (김황원)

山城雨惡還成雹
澤國陰多數放虹

산성의 사나운 비 도리어 우박이 되고,
못(澤)이 있는 곳에 음기가 많아 자주 무지개 뜨네.

迎遼使 (요(遼)나라 사신을 영접하다.)

鳳含綸³⁾從天降³⁾

鰲駕蓬萊渡海來⁴⁾

봉황이 윤발을 머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자라는 봉래에서 멩에 하여 바다를 건너왔네

1) 郡齋(군재) : 고을의 원님인 감무(監務 高麗時代)가 집무하는 치소(治所)

2) 金黃元(김황원) : (1045~1117) 광양 출신으로 고려 번성기인 선종, 숙종(宣宗, 肅宗)시대의 문신이며 큰 문장가이다. 특히 고문을 전공하여 해동제일(海東第一)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역사 인물편 참조)

3) 綸(윤발) : 황제의 조서

4) 蓬萊(봉래) : 신선이 산다고 하는 4곳 중의 하나로 발해만 근처에 있다고 함.

5) 練光亭詩(연광정시) : 김황원이 평양 연광정에 올라 현판해 놓은 고급의 시들을 보고 마음에 안들어 모두 불사르고 걸작 한수를 지으려 했으나 수련(首聯) 한 구절만 짓고 나머지 삼련(三聯)을 못지어 올면서 하정(下亭)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 수련(首聯)이 이어 뒤에 3연(三聯)을 지었다는 시인(성명미상)이 있었는데 萬戶樓臺天半起/四時歌舞月中還/風煙不盡江湖上/詩句長留宇宙間/黃鶴千年人已遠/夕陽回棹白雲灣, 이라 하였다. 이를 국역(國譯) 하면 많은 무대(樓臺)는 안계(眼界)의 반(半)이나 되고/춘하추동 노래하다가 달밤에 돌아오네/바람과 연기는 강 위에서 사라지지 않으며/사구(詩句)는 길이길이 우주에 남아 있겠지/황학루(黃鶴樓)에서 시 읊은 최호(崔顥) 천년이 더 되었으니 석양(石陽)의 백운만(白雲灣)에 돛을 돌려오네.

6) 金商佑(김상우) : 고려 선종(宣宗, 肅宗) 때의 문신으로 예부(禮部)와 형부(刑部)의 상서(尙書)를 역임했다. 당시 김황원이 고문을 전공하여 해동제일(海東第一)의 칭이 있어서 시속이 이를 시기하여 김황원 배석의 상소를 올렸는데 상서 김상우가 위와 같은 시를 지어 김황원을 적극 보호했다는 고려사의 기재가 있음.

7) 李茂芳(이무방) : (1309~1398) 옥룡면 울천리(栗川里) 옥동마을 출신으로 고려 충목왕(忠穆王)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쳐 밀직제학(密直提學)이 되어 공신(功臣)의 반열에 올랐다. 뒤에 계림부윤(鷄林府尹)이 되고 또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가 되었으며 공민왕 23년(1374)에는 고시위원장 격인 지공거(知貢舉)가 되었다. 창왕(昌王) 원년(1388)에는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이 되었고 조선건국후인 태조 원년(1392) 조준(趙浚)의 천거로 다시 검교문하시중이 되고 광양 부원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라 하였다.

登平壤 練光亭⁵⁾ (평양 연광정에 올라서)

長城一面溶溶水 장성 한쪽에는 넓으면서 조용히 흐르는 물이요
大野東頭點點山 큰들 동쪽 끝에는 아득하여 점점 보이는 산뿐이네

贈金黃元 (김황원에게 주다)

尙書 金商佑⁶⁾ (상서 김상우)

學非浮薄終歸古
道不回邪豈媚今

학문이 들뜨고 얇지 않으니 마침내 고문(古文)으로 돌아가고
가는 길이 간사하지 않으니 어찌 오늘에 아첨하리오

江陵寒松亭 (강릉 한송정)

李茂芳⁷⁾ (이무방)

亭依松麓斷	東望海無門
境靜仙蹤在	沙明鳥篆存
碑心苔暈綠	石面雨痕昏
一掬泉何渴	源乎天地根

정자가 소나무 기슭에 의지했는데 동쪽을 바라보니 바다라 끝이 없네
지경이 고요하니 신선의 종적 있고 모래 밝은 데는 새 발자국 남아있네

비석에는 이끼 무늬 푸르고 돌에는 비 맞은 자국이 어둡네
한 움큼 되는 물이나 어찌 마르리오 근원(根源)은 천지에 뿌리를 했는데

客舍⁸⁾ (객사)

金克己⁹⁾ (김극기)

雨過西山爽氣新

霜楓露菊爛回春

金風索莫淒衾枕

綠酒紅裙漸可新¹⁰⁾

서산에 비 개니 상쾌한 기운 새롭고 서리 단풍 이슬 국화 봄이 온 듯 빛나네
가을 바람 삭막하여 잠자리 처량한데 술과 어여쁜 아가씨 친근해 지고싶네

膳肉 (제사지낸 고기)

監事金宗直¹¹⁾ (감사 김종직)

(時 膳肉 迫到 彌草嶺下 深院 吟贈 一律)

溪上華樓節暫停¹²⁾

頽然縫掖兩襟青¹³⁾

豚肩脂涵來相勸

知是曦陽祭上丁¹⁴⁾

(때 마침 제사지낸 고기를 미초령 밑 깊숙한 집에 보내와 시 한수를 읊어보내다.)

시냇가 좋은 누각에 감사가 잠시 쉬었는데,
기품 있는 사람 도포 입고 있으니 양 옷깃도 좋구나.
맛 좋은 술과 고기 서로 권하니
희양고을 상정일(上丁日) 제삿날인 것 알겠네

客舍(三首) (객사(3수))

崔脩¹⁵⁾ (최수)

一. 古堞依山麓

東西二水分

投林憐倦鳥

出岵愛孤雲

地盡滄溟近

天晴瘴霧昏

君門行漸遠

歸夢更繽紛

8) 客舍(객사) : 고려나 조선시대에 각 고을의 관사(館舍)로 초하루와 보름에는 궁궐을 향하여 배례하고 또 여행하는 관권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광양객사는 현 읍사무소 서편의 옛날의 광양읍사소였으나 6·25사변 때 소각되었다.

9) 金克己(김극기) : 생몰년 미상 고려무인 집정시대의 문인으로 시에 능했으며 그 문집이 150권이 된다고 함.

10) 紅裙(홍군) : 아름다운 기녀(妓女)를 가르키는 말

11) 金宗直(김종직) : (1431-1492) 경남 밀양 출신으로 고려말 야은 길재(吉再)의 학통을 이어 받은 성리학자로 호는 점필재(佔畢齋)라 하였다. 영남학파의 종조(宗祖)로 무오사화에 부관 참시되었으나 뒤에 설원되어 영의정까지 추증되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김종직은 성종(成宗) 18년부터(1487) 1년간 진라감사직에 있었으니 그때 광양에 와서 작시한 것으로 생각됨.

12) 節(절) : 조선시대에 왕이 지방관권을 임명하여 보낼 때 절(節)과 부월(斧鉞)을 주었는데 절은 수기(手旗)이고 부월은 도끼같은 것으로 왕권(王權)을 상징하였다.

13)-1) 頽然(기연) : 사람이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

13-2) 縫掖(봉액) : 도포와 같은 소매가 넓은 것

14) 上丁日(상정일) :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 음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을 말함.

15) 崔脩(최수) : 년대와 행장(行狀)을 문헌으로 아직 고증할 길이 없음

二. 歲月途中暮 山川馬上分
煙村多綠竹 稱野靄黃雲

把酒心猶壯 看雲眼欲昏
倚欄時獨立 自嘆髮絲紛

三. 盲霧陰昏古戰場 女今舜日正當陽
邊烽不警民安枕 鹽竈漁家接海傍

1. 옛 성가퀴는 산밑에 의지해 있고, 시냇물은 동서로 나뉘어졌네
숲으로 날아드는 새 어여쁘고 산 속에서 나가는 외로운 구름 아름다워라

육지가 다된 곳이라 바다는 가까운데
하늘은 맑았어도 독이 있는 안개는 어둡기만 하네
그대의 집 갈수록 멀어지니 고향 꿈 그림고 백발만 휘날리네

2. 세월은 나그네길에서 저물어져 가고 산과 물은 말굽에서 갈라지네
연기 오르는 마을엔 푸른 대 많고 좋은 들에는 아지랑이 누런 구름같이 보이네

술 마시니 마음 젊어지나 글 읽으니 눈에 잠이 올라 하네
난간에 기대 홀로 서서 백발만 형클어진 것 탄식하네

3. 안개조차 음산했던 옛 싸움터에 지금은 요순의 태평 세월 같네
변방에 봉화 없어 백성은 편안하여 소금 굵고 고기 잡는 집 바닷가에 잇따랐네

16) 郎廳房(낭청방) : 희양지(曦陽誌)에 의하면 낭청방은 객사(客舍)가 지어지기 이전에 임시로 그 역할을 하였던 곳이 아닌가 추측된다.

17)-1) 都事(도사) : 고려와 조선 시대의 관직이름

17)-2) 趙璞(조박) : (1356~1408) 여말과 조선초의 문신으로 조선 태종 이방원(李芳遠)과 동서간으로 조선건국을 도와 개국공신이 되었다. 이 때의 시는 조박이 전라도 도사로 있을 때 작시 한 것으로 추측됨.

廊廳房¹⁶⁾ (낭청의 방)

都事 趙璞¹⁷⁾ (도사 조박)

崎嶇絕磴黃攀登

目擊光陽縣可矜

土瘠海濱官最弊

丁亡兵役賦猶增

垂簾野店追忙亂

絕筮公庭拜戰兢

洪舅高風街巷說

李侯遺愛井疆稱

孤城落木蕭蕭雨 萬里歸心耿耿燈
 明發更憑_{僮僕}問 却愁前路有邱陵

힘약한 돌벼락 휘어잡아 올라가니,
 광양고을 한눈에 보여 아름답구나

척박한 해변인데도 관원의 폐단 많고
 장정은 병역 피했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많아졌다.
 더벅머리 총각들 야점(野店)에서 장난 이어지고
 갓 벗은 아전들 공정(公庭)에서 벌벌 떨면서 절하네

홍부원군의 높고 풍도는 거리마다 이야기하고
 이 군수의 남긴 사랑은 우물에서까지 칭찬이네

고성(孤城)의 낙엽에 빗소리도 쓸쓸하고
 만리길 고향생각 등불에 깜박거리네

내일 떠나려고 종에게 물어보고
 가는 길에 구릉(邱陵) 있을까 수심하네

運籌樓¹⁸⁾ (운 주 루)

監司 尹尙¹⁹⁾ (감사 윤향)

巡遊駐鉞古城樓²⁰⁾ 事業益彰萬里侯
 一畝麥梁知有歲 滿簾風雨誤修秋

群峰西望雲開外 大海南看地盡頭
 日暮蒼蒼煙_靄合 長安不見獨生愁

순찰하는데 부월(鉞)을 들고 옛 성루에 머무르니
 사업이 더욱 돋보이는 감사로다
 한 이랑(畝)의 보리와 기장 풍년이 올 것 알겠으며

18) 運籌樓(운주루) : 희양지(曦陽誌)에 의하면 객사 동쪽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위치를 고증할 길이 없음

19) 尹尙(윤향) : (1374~1418)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조선 태종 7년(1407)부터 태종 9년 8월(1411)까지 전남도 안염사(按廉使)(통칭 감사)로 있었으니 이때 광양에 와서 작시 한 것으로 생각됨

20) 駐鉞(주월) : 註12) 참조

밭(簾)에 불어오는 비바람은 가을인양 생각되네

못 봉우리는 서쪽 구름 밖에 보이며 큰 바다는 육지가 다된 끝에 있다네
 날 저무니 아득히 연기 초목에 얽혀 서울은 보이지 않으니 수심만 생기네

21) 簾邊樓(주변루) : 1528년(중종23년) 현감 박세후(朴世後)가 세웠으며 광양읍 칠성리 호북정(虎北亭)에 있었다고 전한다.

22) 縣監 洪南立(현감 홍남립) : 효종(孝宗) 원년(1650) 12월부터 효종4년(1653) 12월까지 광양 현감으로 재임.

23) 倭橋(왜교) :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해안에 있는 왜성대(倭城臺)를 중심으로 한 진지를 말한다.(역사편 참조)

簾邊樓²¹⁾ (주 변 루)

縣監 洪南立²²⁾ (현감 홍남립)

疲生池面起蓮風 樓外槐陰翠碧空
 吏退印封庭寂寂 石榴花落雨聲中

못 위에 파도이니 연잎에도 바람일고 누각 밖 괴수나무 하늘 높이 솟았네
 집무시간 끝나 동원뜰 적적한데 빛소리 들려오니 석류 꽃 다 지겠네

倭橋²³⁾ (왜 교)

皓首搔來烏帽斜 孤城一上思無涯
 埜隍依舊腥猶臭 天地如今我自歌

芳草喚愁青藜合 暮潮憑怒白波多
 腐儒謾有吞胡計 天劍向當拉朽槎

백발을 휘날리며 두건 쓰고 달려와서 외로운 성 올라 보니 생각은 끝이 없네
 대황(埜隍)은 예와 같은데 피비린내 나는 듯 천지는 변함없어 노래 부르네

방초에 아지랑이 짙으니 수심이 가득 저녁 조수 성낸 듯 거센 물결이네
 못난 선비 부질없이 왜놈들 치고 싶으니 보검(寶劍)으로 마땅히 썩은 놈들 꺾으리……

狸島船所²⁴⁾ (이도선소)

山襟江匯岸亦堦 形勝端午繫重船
解纜何須潮進退 開頭亦足柁周旋

風藏不患衡鯨浪 海濶還便望燧煙
聖代卽今兵火息 帥旗長捲夕陽天

강이 돌고 산을 낀 언덕 빈 터 앞에 형승지 단오날에 배가 겹겹이 매어있네
닢줄 풀어도 어찌 들물 썰물 걱정하며 노를 저어도 조타(操舵)가 자유롭네

바람 막혔으니 큰 파도 걱정 없고 바다가 넓다하나 봉화불은 잘 보일 것이네
태평성대 오늘날 병화(兵火) 끝났으니 장수 깃발 석양하늘에 없어진지 오래이네

24) 狸島船所(이도선소) : 진월면 선소리에 배를 만들던 선소(船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간척사업으로 이도(狸島)가 물이 되었음.

松川寺²⁵⁾ (송천사)

李穡²⁶⁾ (이정)

松檜依然鎖洞門 禪窓終日絕塵喧
問僧默坐成何事 爲說無言勝有言

소나무와 회나무 그대로 동문(洞門)을 막았고
선창(禪窓)에는 종일토록 속세의 시끄러움 없네
중에 묻노니 묵묵히 앉아 무엇 이룩하였는고 하니
말없는 것이 말하는 것 보다 낫다고 하네

25) 松川寺(송천사) : 옥룡면 동곡리에 있었던 절로 신라 후기에 창건(創建)된 것으로 추정한다. 병자호란 때 의병장인 회은장로(梅隱長老)를 기리는 비가 서 있고 주위에는 동백나무가 무성하다.(사찰편 참조)

26) 李穡(이정) : 행적을 고증할 길이 아직 없음

松川寺 (송천사)

李穡²⁷⁾ (이런)

暇日尋眞到寺門 山庵幽靜隔塵喧
禪房夜久無餘事 惟聽阿彌誦法言

27) 李穡(이런) : 상동

한가한 날 좋은 곳 찾아 사문(寺門)에 드니 암자는 고요하여 세속소리 들리지 않네
선방(禪房)에 밤늦도록 할 일 없는데 아미타불 하는 불경 외우는 소리뿐이네

松川寺

28) 縣監 任後錫(현감 임후석) :
숙종 17년(1691) 10월부터
동20년(1694) 9월까지 광
양 현감으로 재임하였음.

縣監 任後錫²⁸⁾

吟鞭遙指白雲門 峽裏波聲入耳喧
考古論今終此夜 世間榮辱更何言

채찍으로 멀리 백운산 가리키며 가는데 골짜기의 물소리 시끄럽게 들려오네
고금(古今)의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니 세간 영욕을 말해 무엇하리오

29) 成佛寺(성불사) : 봉강면 조령리 도솔봉 밑에 있음. 창건은 고려시대로 추정하며 조선후기에 소각되었다가 1966년 무현(無現 : 朴泰春) 스님이 옛터에 조그마한 암자를 세웠으며 1965년 김금통(金金通)이 약1년간 지켜오다 1966년부터 무현스님이 지속적으로 사찰을 증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成佛寺²⁹⁾ (성 불 사)

百曲清溪半日尋 白雲深處有鍾音
爲民齋沐同儒釋 天地神靈共照臨

맑은 물 백곡(百曲)을 돌고 돌아 반나절에 찾아가니
흰 구름 짙은 곳에 종소리 들려오네
백성 위해 목욕재계는 유(儒) 불(佛)이 한가지라
천지신명도 굽어보시리...

30) 南門樓(남문루) : 光陽邑 仁東里 현재 남문마트 자리이며 개수 후에는 청조루(聽潮樓)라고 개칭했다고 함.

南門樓³⁰⁾ (남 문 루)

登臨轉覺爽如秋 檻外風光近十洲
靑山雨霽後江興 乘月沙頭問白鷗

올라보니 가을처럼 시원함을 느끼고 난간 밖 십주(十洲) 풍경 눈앞에 보이네
청산에 비 개이자 뱃노래 흥겨워 달뜨면 모랫가 갈매기에게 물으리

詠牛(八歲作) (소를 읊음(8세작))

新齋 崔山斗³¹⁾ (신재 최산두)

爾從麟借尾	炎帝與其頭 ³²⁾
地關中寅子 ³³⁾	商正間夏周 ³⁴⁾
夜奔燕將劫 ³⁵⁾	春喘漢相憂 ³⁶⁾
未賴齊王易 ³⁷⁾	煙郊牧笛收

너는 기린을 쫓아 꼬리를 빌리고
 염제(炎帝)가 너 머리를 주었더니!
 땅은 너를 쫓아 축시(丑時)에 열리고
 상(商)나라 정월은 너를 세워서 세수(歲首)를 정했구나

밤중에 적진에 돌진하여 연(燕)나라 장수 겁을 먹고
 봄날에 숨 혈떡이니 한(漢)나라 재상이 근심하였다네
 제(齊)나라 왕이 양(羊)으로 네 몸을 대신 껴앉았더라면
 아마 들에 목적(牧笛)소리 사라질 뻔하였구나.

與柳眉巖同宴³⁸⁾ (유미암하고 같은 연회에서)

白髮文章放醉歌	盖由宴席酒盃多
雲樹情深猶未了	落花啼鳥夕陽阿

늙은 문장들 술에 취해 노래하는 것은
 연석(宴席)에서 술 많이 들었기 때문이네
 친구를 그리는 정(情) 깊어 퍼지 못하였는데
 석양 언덕에서 꽃은 지고 새만 울고 있네



사진3-1 : 신재 최산두

31) 新齋 崔山斗(신재 최산두) : (1482~1536) 광양 봉강 출신으로 생진과(生進科) 문과(文科)에 등재하여 의정부 사인(舍人)에 이르렀으나 조광조(趙光祖)와 같이 기묘사화에 연루(連累)되어 화순 동복에서 15년간 유배되었던 호남 3결중의 한사람(인물 역사편 참조)

32) 炎帝與其頭(염제여기두) : 염제는 중국고대 전설시대의 제왕인 염제신농(炎帝神農)씨를 말함. 그 머리가 소와 같았고 화덕(火德)으로 임금이 되었다 하여 염제라하고 또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가하여 신농(神農)씨 라고 함.

33) 地關中寅子(지벽중인자) : 동양철학에서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는데 「하늘은 자시(子時)에 열리고 땅은 축시(丑時)에 열렸으며 사람은 인시(寅時)에 나왔다」고 하였다. 이 시귀에 「땅은 인시와 자시 사이에서 열리고 하였으니 곧 축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축(丑)은 곧 소를 가리키는 것이니 소는 영물(靈物)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

34) 商正閏夏周(상정간하주) : 중국 상고시대인 하(夏) 왕조에서는 일월(寅月 陰 1月)을 정월로 하였으며 상(商=殷) 왕조에서는 축월(丑月 陰 12月)을 정월로 하였고 주(周) 왕조에서는 자월(子月 陰 11月)을 정월로 정하였다. 소의 달인 축월(丑月)을 정월로 한 것은 상나라이니 상나라의 정월은 하(夏)나라 정월인 인월과 주(周)나라 정월인 자월의 중간에 있는 축(丑)이었다는 뜻이다. 한나라의 정월은 인월(陰 1月)이니 이는 한(漢)나라 때부터 임.

35) 夜奔燕將劫(야분연장겁) : 중국 전국시대의 제(齊)나라 장수 전단(田單)이 연(燕)나라와 싸울 때 소 1,000여 마리에 붉은 비단을 입히고 뿔에는 갈을 동여매고 꼬리에는 기름을 먹인 것에 다발을 붙들어 매어 밤에 꼬리에 불을 붙여서 일제히 연나라 진영으로 내몰아 정병을 살상케 했다는 고사(故事)를 말함.

36) 春喘漢相憂(춘천한상우) : 한(漢)나라 재상 병길(丙吉)이 봄에 소가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고 천지의 음양이 고르지 못했는가 하여 근심했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37) 未賴齊王易(미래제왕역) :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소를 제물로 쓰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떠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염소로 바꾸게 했다고 하는 고사(故事)가 있음.

38) 柳眉巖(유미암) : 미암(眉巖)은 유희춘(柳希春)(1513~1577)의 호이다. 미암은 해남출신으로 최신재와 같이 호남삼걸중 한사람인 유성춘(柳成春)의 아우이다.

39) 李浚(이준) : 광양 출신·마음은 아직 고증을 못한, 조선 선조(宣祖) 초에 무과에 등재하였다. 호남절의록에 의하면 선조 26년(1593) 왜적을 광양읍 동편에 있는 마로산성(馬老山城)에서 격파한 공로로 의주 부윤을 제수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의 시로 보아 취임하였다고 할 것임.

山城除夜 (산성의 그믐날 밤)

義州府尹 李浚³⁹⁾ (의주부윤 이준)

爲客西關問幾秋	寒燈旅館不勝愁
故鄉千里音書斷	此夜三更涕淚流
投筆當年身已誤	枕戈今日尙尤誰
他日 倘得田園樂	浮世虛榮孰肯求

평안도에 나그네 된지 몇 해가 되었고

추운 밤 여관에 수심 건디기 어렵네

고향 천리 소식 없는데

이 밤 삼경(三更)에 눈물만 흐르네

벼슬길에 나온 그 때 이미 잘못했고

창(戈)을 베개로 하고 있는 오늘을 누구에게 원망하리

뒷날 다행히 전원(田園)의 즐거움을 얻는다면

뜬세상의 허영을 어찌 구하리...

題歸來亭⁴⁰⁾ (귀래정을 제목하여)

屋上青山屋下水	小亭寂寞號歸來
岩邊翠色千竿竹	窓外清香一樹梅
波靜澄潭魚戲泳	松長洞壑鶴徘徊
十年虛負江湖樂	自愧沙鷗待我回

집 위는 청산이며 집 밑은 물인데 적은 정자 적막하여 귀래정이라 이름하였네

바위 언저리 푸른빛은 많은 대(竹)요 창 밖의 맑은 향(香)은 한 그루 매화이네

물결 없는 맑은 못에 고기 놀고 긴 솔(松) 구렁에 학(鶴)이 머뭇거리네

20년이나 강호(江湖)의 즐거움을 저버렸으니

갈매기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에 부끄러워하네

蟾居驛⁴¹⁾ (섬거역)

朴文龍⁴²⁾ (박문룡)

月穿茅屋夜 近竹床時
 吟嘯衰難廢 盃觴病亦持
 愛君心不老 憂國髮先知
 會揀幽棲地 非山卽水湄

달빛이 띠집에 스며드는 밤에 귀뚜라미 대(竹) 평상에서 소리나네
 읊음은 늙었어도 그만두기 어렵고 술은 병들어도 즐기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으며 나라근심에 머리가 희어졌네
 은둔지(隱遁地)를 찾는대는 산이 아니면 물 갯이라 하겠지

水月亭三十詠⁴³⁾ (수월정 30음음)

睡隱 姜沆⁴⁴⁾ (수은 강항)

一. 洞天風月 (1. 좋은 계곡의 바람과 달)

浮世功名五十年 歸來四壁客無氈
 惟有溪風與杉月 取之應不費文錢

뜬 세상 공명 찾아 50년 지났는데
 돌아오니 벽안에 앉을 방석도 없네
 오직 시내 바람과 삼나무에 비친 달은
 즐겨도 돈 한푼 안든다네

二. 岳陽烟霞⁴⁵⁾ (2. 악양의 연기와 안개)

烟霞深鎖岳陽天 正似鴻蒙未判前
 分明方丈神仙子 隔斷漁樵晋客船

연기와 안개가 깊이 잠긴 악양의 하늘이 정말로 천지가 판별되기 전과 같구나
 분명히 방장산(方丈山=智異山)의 신선들이
 고기 잡고 나무하면서 신선 찾아가는 진(晉) 객선(客船)을 막아 놓았으리



사진3-2 : 수은강항

40) 歸來亭(귀래정) : 이준(李浚)이 관직에서 물러나고 고향에 와서 지은시로 보이나 귀래정의 내력과 위치는 아직 고증 할 길이 없음.

41) 蟾居驛(섬거역) : 옛날 우역(郵驛)의 역할을 했던 지금의 진상면 섬거마을

42) 朴文龍(박문룡) : 출신 마을과 생몰(生沒)년대와 행장(行狀)을 아직 고증할 길이 없으나 구지(舊誌)에 조선 선조(宣祖) 3년(1570)에 문과(文科)에 등제 한 것으로 되어 있음.

43) 水月亭(수월정) :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섬진강변에 있었음. 원래는 광양출신 정접(鄭傑) (1547~ ?) 이 선조(宣祖) 9년(1576)에 문과에 급제하고 후 나주 목사를 지낸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섬진강변에 수월정을 세워 여생을 보냈다고 함. 정철(鄭澈)(1536~1593)은 정접을 위해서 수월정기를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수월정은 없어졌는데 1999년 광양시가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였다.

44) 睡隱 姜沆(수은 강항) : (1567~1618) 영광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한 문신이며 학자이다. 정유재란(丁酉再亂)때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 갔다가 4년뒤에 귀국하였으나 관직에는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월정 30영(水月亭 30詠)은 수은 집에 등재되어 있을 뿐 어느 때 광양에 와서 읊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더구나 수은은 정주(亭主)인 정접의 20년 연하의 후배이기도 하다.(앞으로 더 고증이 필요하다.)

45) 岳陽(악양) : 경남 하동군 악양면으로 수월정에서 보면 북쪽 지리산 하록(下麓)임.

46) 媧皇(와황) : 사기삼황기(史記三皇紀)에 의하면 녀와(女媧)씨로 하여금 하늘이 기우는 것을 염려하여 오읍(五邑)의 들을 다듬고 자라의 다리를 끊어서 4극(四極)을 세우고 蘆灰로 浚水를 막았다 함 「史記三皇紀」

三. 競秀千岩 (3. 빼어남을 다투는 바위들)

千岩競秀千芙蓉 直入閨門第九重
疑是媧皇補天石⁴⁶⁾ 至今片片落橫縱

많은 바위들 빼어남을 다투니 많은 무용꽃 같아
곧바로 상제(上帝)의 구중궁궐인 듯 하네
아마도 와황(媧皇)의 하늘을 보고 보철(補綴)한 돌이리라
지금껏 조각조각 떨어져 뒹굴고 있으니……

四. 爭流萬壑 (4. 다투어 흘러가는 많은 구렁)

衆皴喧逐石扇開 洞林晴日殷晴雷
憑君莫訖香爐瀑 爭似分從萬壑來

모든 물 시끄럽고 석선(石扇)이 열렸는데
동림(洞林)의 개인 날에 우뢰소리 천둥치네
그대는 향노의 폭포를 자랑마라
많은 구렁으로 나누어 달려오는 것만 하겠는가

五. 盆地春花 (5. 분지의 봄 꽃)

一度韶陽一度新 山家契闊未全貧⁴⁷⁾
任地紅紫競時節 粧點亭臺滿意春

한번 봄이 와 새로워지니
산가(山家)의 외로운 생활 가난한 것만은 아니로구나
울긋불긋 시절을 다투는 것 내버려두어라
정자와 대석(臺石)을 꾸며내는 원 없는 봄이 온 것을……

47) 契闊(계활) :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여 소식이 끊기는 것

六. 方丈夏雲 (6. 방장산(지리산)의 여름 구름)

方丈山雲山上山 愁心千疊有無間
從龍未慰三農望 碧落飄然去又還

방장산의 구름 산 위의 산같이 보이니
시름에 찬 천첩(千疊)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구나
용을 따라 다니면서 삼농(上中下農)을 달래지 못하고
하늘에 둥둥 떠서 가고 오고 하는구나.

七. 白雲秋月 (7. 백운산의 가을달)

一片冰輪萬里浮 白雲山上白雲秋
憑誰問着此時月 應照長安明月樓

한 조각 달이 만리에 뜨니
백운산 위에 흰 구름은 가을이구나
누구에게 이 때의 달을 차지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서울의 명월루에 비추리라

八. 蓴岩冬雪 (8. 순암의 겨울눈)

蓴岩冬雪積成堆 疑是穆王重壁臺⁴⁸⁾
誰着王恭鶴氅坐⁴⁹⁾ 神仙初出閩風來⁵⁰⁾

순암의 겨울눈 쌓여 흙무더기 되었으니
목왕(穆王)의 중벽루(重壁樓)인가 의심되네
누가 왕공(王恭)의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앉았는가
신선이 낭풍(閩風)에서 왔는가 하네

48) 穆王重壁臺(목왕중벽대) :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천하를 주유(周遊)하다가 황대(黃臺)의 언덕에 쌓아놓은대(臺)의 이름

49) 玉燕(왕공) : 얼굴이 아름다워 언젠가 학창의(鶴衣)를 입고 눈가운테를 보행하니 맹창(孟昶)이 바라보고 참으로 신선중의 선선이라 하였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50) 閩風(낭풍) : 선계(仙界)의 지명

51) 重瞳(중동) : 성군의 눈은 동자가 둘이라고 하며 중국 상고에 순(舜)이 중동이라고함.

九. 東嶺朝暾 (9. 동쪽재의 아침해)

火輪飛出石門東 光射扶桑萬里紅
 却憶銅龍蓮漏盡 九城初日暎重瞳⁵¹⁾

불 바퀴 석문(石門) 동쪽에 날아 오르니
 빛이 동쪽(扶桑)을 쏘아 만리가 붉네
 문득 생각하니 동룡(銅龍 : 漏水器=時計)에 누수가 된 뒤에
 구성(九城)의 아침해가 왕의 중동(重瞳) 눈을 비추리

十. 西山落照 (10. 서산의 저녁 햇빛)

微陽灑灑白雲間 遠燒分明入亂山
 元在住西君莫道 夜朝還徃生自循環

얇은 별이 흰 구름 사이에 뉘엿뉘엿 하는데
 멀리 타오르는 산들 분명하기도 하네
 원래 서쪽에 있다고 말하지 마오
 밤낮으로 오고 가며 돌고 도는 것

52) 朝宗(조종) : 제후(諸侯)가 천자에게 조회하려 가는 것

十一. 朝宗逝水⁵²⁾ (11. 조종하여 가는 물)

百谷從來有所尊 澄江日夜向東奔
 千峰不閉朝宗路 日夜盈科到海門

백곡(百谷)의 물 본래 존숭(尊崇)하는 바 있어서
 맑은 강물까지 밤낮으로 동해를 향해 달린다네
 천봉이 조종(朝宗)하는 길 막지 아니하였으니
 밤낮으로 과정(過程)을 채워 해문(海門)에 이르네

十二. 歸市 行人 (12. 저자로 가는 사람들)

從古蟾津號要津 綠荷包飯似魚鱗
分明一關有奇偶 堪笑區區墮斷人⁵³⁾

예로부터 섬진(蟾津)을 요진(要津)이라 하였는데
푸른 연잎에 밥 싸들고 고기비늘처럼 하는구나
한자리 소란 속에 분명히 행불행(幸不幸)이 있는 법인데
우습구나 구차하게 농단(墮斷)하는 사람들…

53) 墮斷(농단) : 높은 언덕에 올라 좌우를 바라보고 이익을 쫓는 사람

十三. 平沙 落雁 (13. 평사에 내리는 기러기)

平沙十里淨漫漫 塞鴻行行點羽翰
翔集更妨大澤枯⁵⁴⁾ 哀鳴莫恨稻梁難

평사장(平沙場) 10리가 길고 긴데
변방에서 날아오는 기러기 하늘에서 점찍은 듯…
내려와 앉으면 화살이 무서우니
도량(稻梁)을 못 찾는다고 슬피 울지 말라

54) 增繳(증적) : 화살로 죽이는 것

十四. 柳岸 飛鶯 (14. 언덕 버들에 날아오는 피꼬리)

楊柳青青三月暮 金衣公子喚詩人
笙簧百轉寧須汝 只愛年年不棄貧

버들이 푸르르니 삼월(陰曆)도 저물어 가는데
금옷(金衣)을 입은 공자(公子=黃鶯)가 시인을 부르는구나
笙簧(笙簧)처럼 우는 네가 어찌 필요하리오마는
해마다 가난한 시인인 나를 버리지 않아 고맙구나

十五. 靑坡 牧犢 (15. 푸른 언덕에 송아지를 치다)

二月春風入燒痕 悖牛將犢自成群
 上坡齧草下溪飲 太廟犧牲不願聞

2월(陰曆)의 봄바람이 불탄 들에 깃들었으니
 어미 소는 송아지 끌고 떼를 이루었네
 언덕에서 풀 뜯고 시냇물 마시니
 태묘(太廟)의 희생 소리는 듣기도 싫구나.

十六. 竹林 栖鳥 (16. 대숲에 사는 까마귀)

倦鳥飛還各有棲 渭川千畝與雲齊
 霜風獵獵月皎皎 驚起時聞半夜啼

느린 새 돌아옴에 각각이 집이 있고
 위천(渭川)의 천무죽(千畝竹)이 구름까지 닿았다
 서릿바람 솔솔 불고 달빛 희고 흰데
 이따금 반야(半夜)에 놀라 깨서 우는 소리 듣는구나

十七. 長郊 牧笛 (17. 긴 들에 소치는 피리소리)

眠牛隴上草如烟 牧笛一聲橫晚天
 年年折盡江頭柳 鼓吹傳呼恐疾顛

소가 잠든 언덕에 풀은 연기와 같고
 소먹이는 피리 소리 하늘에 울린다
 해마다 강둑의 버들 꺾어 다하고
 북 치고 피리 부는 소리 정신이 산란해진다.

十八. 遠浦 漁歌 (18. 먼 포구의 어부노래)

一聲何處漁歌傲 聲逐斜風細雨過
 畫堂玉佩繁雲響 爭似蓑翁歌此歌

어느 곳에서 들려오는 한 곡조의 어부 노래 소리에
 산들바람과 가랑비가 따라온다
 화당(畫堂)에서 옥패(玉佩)차고 구름까지 울리는 노래
 도롱이 입고 부른 이 노래만 하리오

十九. 竹桶 引泉 (19. 대통으로 샘물 인입)

山客理生窮百巧 竹竿分引細泉清
 傳聲百步青雲濕 可起消中病馬卿⁵⁵⁾

산중 사람이 생활 하려고 온갖 꾀를 내는데
 대나무 홈을 파서 샘물을 당겨왔다
 소리가 백보 밖에 울려 구름도 젖었으니
 소갈병(消渴病) 앓은 마경(馬卿)도 나올 수 있으리

二十. 水碓 舂梁 (20. 물레방아 절구질)

聞得清泉一道長 細舂香稻白如霜
 三虛不負將軍腹⁵⁶⁾ 碓杵無勞老孟光⁵⁷⁾

수문까지 맑은 물 넘어서 한줄기 길게 뻗쳤고
 좋은 벼 잘 찧어서 서리처럼 하얗네
 삼허(三虛)가 장군의 배를 저버리지 아니하니
 방아(碓杵)에 늙은 맹광(孟光)을 괴롭힐 일 없다네

55) 馬卿(마경) : 마경은 중국 전한(前漢)시대의 문신인 사마상여(司馬相如)(BC179 ~117)의 자(字)이다.

56) 三虛(삼허) : 물레방아(水碓)인듯하나 삼허(三虛)란 명의(名義)는 미상(未詳)

57) 孟光(맹광) : 梁鴻의 妻

二一. 間竹 梅菊 (21. 대에 끼인 매화와 국화)

黃菊梅花德有隣 暮年生活托叢筠
肯將桃李競顏色 直待冰霜方見眞

노란 국화와 매화가 덕으로 이웃이 되어
모년(暮年)의 생활을 총죽(叢竹)에 의탁했네
어찌 도리(桃李)와 얼굴을 다투리오
가을 서리 내릴 적어 참모습 보이리라

二二. 傲雪 松篁 (22. 눈에 거만한 솔과 대)

花枯無艷鳥沉歌 死瓦青山寒氣多
惟有青松兼綠竹 大冬深雪奈君何

꽃은 말라서 향기 잃고 새도 노래 그쳤는데
귀족은 듯 청산에 한기(寒氣)만 많구나
오직 푸른 솔과 대나무를
한겨울 깊은 눈인들 어찌하겠는가

二三. 魚躍 蓮池 (23. 고기가 연못에서 뛰)

鑿破蒼苔一席許 清泉數斛十莖荷
天光雲影忽破碎 知有遊魚潑潑過

창태(蒼苔)의 일석지(一席地)를 파서 만든 연못에
맑은 물 몇 섬에 열줄기의 연(蓮)
천광(天光)과 운영(雲影)이 갑자기 부서지는 것은
노는 고기 팔팔 뛰면서 지나가기 때문이네

二四. 霜_酉楓岸 (24. 서리맞은 언덕 단풍)

靑女偏侵楚岸楓 千林一夜染成紅
憑誰說與西風道 功莫斜飄錦葉空

청녀(靑女:霜神)가 초안(楚岸)의 단풍을 심히 때려
천림(千林)이 하룻밤에 빨강게 물들었네
누구를 통해 서풍을 타일러
함부로 비단 잎을 떨어지지 말라 할꼬?

二五. 南橋 送客 (25. 남교에 손님 전송)

南橋芳草綠萋萋 把酒沙頭惜解携
如此江山如此景 勸君無惜暫時稽

남교(南橋)에 망초(芳草)가 무성하게 푸르는데
사장(沙場) 머리에서 술 들며 이별하기 아쉬워하네
이와 같은 강산에 이와 같은 풍경 있으니
그대여 잠깐만 머무르면 어떠한지

二六. 北里 招朋 (26. 북쪽마을에서 벗을 초청)

北里招朋朋滿座 若非溪友卽園翁
慇懃爲報主孟道 莫說家貧新釀空

북리(北里)에서 벗을 불러 벗이 자리에 가득하니
물가의 벗이 아니면 동산의 늙은이로구나
주인에게 은근히 말하노니
집이 가난하여 술이 없다고 말하지 마오

二七. 龍灘泛舟 (27. 용탄에 뜬 배)

年來吾道付滄洲 愛向龍灘灘上遊
 水底魚龍_{龍音}白髮 不愁驚浪破虛舟

연래(年來)의 나의 생활 창주(滄洲)에 붙었으니
 용탄의 여울 위에서 즐거이 노닌다.
 물 속의 어룡(魚龍)들도 백발을 알아보니
 물결이 빈 배를 부술 걱정 아니하네

二八. 龜淵釣魚 (28. 귀연의 낚시질)

龜淵魚似沔南魚 把釣來投細雨餘
 鼎有烹鮮盤有鱸 老來謾飽未全疎

귀연(龜淵)의 고기가 면남(沔南)의 고기와 같아
 낚싯대 들고 와서 가는 비속에 드리운다
 솥에는 삶은 고기 소반에는 회(鱸)가 있으니
 늘그막에 포식할 대책 무던하여라.

二九. 松下煎茶 (29. 소나무 아래에서 차를 다림)

松子煎茶松影裡 松根盤石聽松風
 松風本在松枝上 忽入先生石鼎中

소나무 그림자에서 솔방울로 차를 다리니 솔뿌리 서리있고 솔바람 소리난다
 솔바람은 본시 소나무가지 위에 있는 것인데 갑자기 선생의 돌솥 속에 들었도다.

三十. 梅邊酌酒 (30. 매화 옆에서 술을 치다)

一觴移就老梅根 爲是清香撲酒尊
 醉後不知山日暮 淡烟疎月正黃昏

잔을 들고 늙은 매화뿌리 옆으로 옮겨 앉는 것은
 맑은 향기 술동이를 쳐주기 때문이네
 취한 뒤에 해가 저문 줄을 몰랐는데
 얇은 연기 희미한 달빛 황혼이 되었구나

望浦 (망포)

御史 朴文秀⁵⁸⁾ (어사 박문수)

桃花流水鯪魚肥
 寒食東風魚流沙

복숭아꽃 떨어져 물 위로 흐르는 계절 쏘가리는 살찌고
 한식 지나 동풍(東風=春風) 불어오니 고기가 모래 위에 띄네

八月十五日夜宿玉龍寺 (옥룡사에서 자다)

葛菴 李玄逸⁵⁹⁾ (갈암 이현일)

曦陽縣北玉龍寺	道詵禪師昔創開
涇水石泉循砌響	森森竹樹繞山栽
耽眷佛畫窮纖巧	仍喜禪房絕點埃
朔雪炎風多少苦	邊胸今日思難裁

희양골 북쪽 옥룡사는
 옛날 도선 선사(道詵 禪師)가 세웠다고 하네
 물소리 치는 바위폭포 섬돌을 돌면서 소리나고
 뻑뻑한 대숲 산에 둘러 심어있네
 즐겨보는 불화(佛畫)는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고
 더더욱 선방(禪房)을 좋아함은 티끌이 없음이라
 찬 눈과 더운 바람이 다소 괴로우나
 가슴 시원한 오늘 내 생각 헤아리기 어렵기만 하여라



사진3-3 : 어사 박문수

58) 박문수(朴文秀) : (1691~1756) 그의 출신지는 충남 천안(天安)이며 호를 기은(耜隱)이라 하였고 영조(英祖)시대의 문신으로 관이 의정부의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그가 암행어사로서 많은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부정을 척결하였고 또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가 왕의 하문(下問)에 백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는 조선에서 전라도요 전라도에서는 광양이요 광양에서는 성황(城隍)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위의 시구절은 성황 조금 서남쪽 망개(望浦)에서 지은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59) 이현일(李玄逸) : (1627~1704) 경북 영덕 출신이며 호는 감암(葛菴)이다. 조선 숙종(肅宗)때의 문신(文臣)으로 관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숙종 20년(1694) 남인 실각(南人失脚)의 갑술옥사(甲戌獄事) 때 함경도 홍원(洪源)으로 귀양갔다가 다시 종성(鍾城)을 거쳐 광양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숙종 30년(1704)에 풀려났고 퇴계(退溪)학통을 계승한 영남 학파의 거두이다.

60) 암연정(巖淵亭) : 광양읍 동천, 계곡마을에 있었던 정자(亭子)로 서천일(徐千鎰)이 지었다. 천일은 조선중종(中宗)때 행의(行義)로 천거되어 군사감주부(軍資監主簿)로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암연정을 지어 학문에 전념했다고 함.

61) 서신구(徐薰龜) : 서신구는 천일의 증손으로 바위에 남아 있었던 巖淵亭의 각자는 그의 필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바위는 고속도로 공사 때 매몰되었다 함.

62) 김익견(金益堅) : 조선 숙종 13년(1687) 11월부터 숙종 15년(1689)까지 광양 현감으로 재임하였음.

63) 수사(洙泗) : 중국 산둥성 곡부(山東省 曲阜)에 공자(孔子)가 살았던 곳에 수수(洙水)와수사(洙泗)의 이름

巖淵亭⁶⁰⁾ (암연정)

巖淵登眺思何窮	徐薰龜 ⁶¹⁾ (서신구)
雪點小灘拳白鷺	霽後長江一望通
	蓋欵高岸亞青松
滿懷灑氣天心月	入袖輕寒水面風
收拾得來無盡藏	渺然如在畫圖中

암연정에 서서 바라보니 끝없는 생각

비 개니 장강이 한 눈에 보이네

눈(雪) 점(點)이 있는 여울에는 흰 해오라기요

아름다운 언덕은 푸른 소나무이네

중천에 달 밝으니 넓고 힘찬 기운 가득하고

수면에 바람이니 소매 끝이 시원하네

달빛과 바람은 써도 써도 한정 없어

이 몸이 아득히 그림 속에 있는 신선인 듯...

巖淵亭 (암연정)

	縣監 金益堅 ⁶²⁾ (현감 김익견)
登彼高亭意自窮	岩淵氣脈洙泗通 ⁶³⁾
灘邊拳足窺魚鷺	岸上欵姿冒雪松
把酒時迎東嶺月	橫琴長卧北窓風
天教此景爲徐在	我欲與之老個中

정자 올라서니 끝없는 생각

암연의 기맥은 수사(洙泗)와 통하네

여울가의 손발은 고기와 해오리 엮이고

언덕 위의 아름다운 자태는 눈과 솔이네

술잔 들고 동쪽 재에 뜨는 달 맞아보고

거문고 가로놓고 북창 바람에 누워보네

하늘이 이 경치 서씨(徐氏)를 위해 있으니

나하고 함께 이 가운데서 늙었으면...

過崔新齋遺墟⁶⁴ (최신재의 옛 터를 지나가면서)
梅泉 黃玟⁶⁵ (매천 황현)

鳳凰飛出勸農門⁶⁶ 百世冰壺月有痕
良史權衡綱目賦⁶⁷ 天荒山水翰林村

湖南三傑吾無間⁶⁸ 己卯諸賢未易論
郡誌千年邀具眼 莫將節義配黃元⁶⁹

봉황새가 권농의 집안에서 나타났으니
백세(百世)에 어름 병 같이 깨끗한 풍모(風貌)를
어찌 달에 흠이 있다 말할 수 있으리
좋은 사책(史冊)을 저울질하는 것은 강목부(綱目賦)요
하늘도 황량한 산과 물은 한림(翰林)의 마음이니

호남의 셋 호걸 내 어찌 폄하(貶下)할 수 있으리
기묘사화의 제현(諸賢)을 쉬이 볼 수 없는 일이니
천년 남을 군지 만드는데 안목(眼目) 있는 인사를 맞아
명절(名節)을 김황원(金黃元)과 짝하면 아니 될 것이네

絶命詩 (四首) (목숨을 끊으며 (4수))

一. 亂離滾到白頭年 幾合損生却未然
今日眞成無可奈 輝輝風燭照蒼天

二. 妖氛電掃帝星移 九闕沉沉晝漏遲
詔勅從今無復有 琳琅一紙淚千絲

三. 鳥獸哀鳴海岳嘖 槿花世界已沉淪
秋風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四. 曾無支廈半椽功 只是成仁不是忠
止竟僅能追尹穀⁷⁰ 當時愧不躡陳東⁷¹



사진3-4 : 매천 황현

64) 최신재유허(崔新齋遺墟) : 신재 최산두의 출생지는 봉강면 부저리(釜楮里)로 추정하고 있음.

65) 매천 황현(梅泉 黃玟) : (1855~1910) 매천은 봉강면 석사리 석현(石峴) 출신으로 32세에 구례로 이사했다. 34세 때 생원시(일명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했으나 관계에 뜻을 두지 않고 시문과 저술에 전념하여 구한말의 4대시 도중 한사람이다. 1910년 경술합당의 비보를 듣고 유시 4수를 남기고 자결한 의사이다. 현재 그의 묘소는 출생마을 뒷편에 잠들고 있으며 평양우산(牛山) 공원에는 동상이 건립되어 있다.(역사 인물편 참조)

66) 권농(勸農) : 조선시대에 방(坊)이나 면(面)에 소속되어 농사일을 장려한 미관 직책이다.

67) 강목부(綱目賦) : 강목부는 신재 최산두가 22세때인 조선 연산군 10년(1504) 진사시에 장원한 글로 당시 한세상에 명문(名文)이라 하여 회자(膾炙)된 글이다.

68) 호남삼걸(湖南三傑) : 기묘사화에 호남출신으로 연루된 세 사람을 호남삼걸이라 하여 호남삼걸두구춘(湖南三傑斗衡春)이라 칭하였으니 두(斗)는 최산두(崔山斗)로, 구(衡)는 윤구(尹衢)로, 춘(春)은 유성춘(柳成春)을 말한다.

69) 황원(黃元) : 고려중엽의 제1문장가 김황원(金黃元)의 이름.(역사인물 참조)

70) 윤곡(尹穀) : 중국 송(宋)나라의 문신으로 몽고병이 쳐들어오자 온 가족이 절개를 지켜 죽었다.

71) 진동(陳東) : 송나라의 문신으로 간신들을 물리치라고 몇 차례 상소하다가 저자거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1. 난리속에 살다보니 백발이 성성하구나
 몇 번이나 죽으려 했지만 그 뜻을 못 이뤘도다
 오늘은 참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가물거리는 촛불은 창천을 비추네
2. 요망한 기운에 가려 임금자리 옮겨지더니
 구중궁궐은 침침하여 햇살도 더디 드는도나.
 조칙(詔勅)은 이제 다시 있을 수 없으니
 구슬 같은 눈물이 종이 울을 모두 적시도다
3. 짐승도 슬피울고 강산도 시름하는구나
 무궁화 이 강산은 이미 사라졌도다.
 가을 등잔불 아래 책을 덮고 수천년 역사를 회고하니
 참으로 지식인이 되어 한평생 굳게 살기 어렵구나
4. 일찍이 나라를 지탱하는데 조그만 공도 없었으니
 이 죽음은 인(仁)이지 충(忠)은 되지 못하리
 겨우 송나라의 윤곡(尹穀)처럼 자결할 뿐이지
 송나라 진동(陳東)처럼 의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부끄럽도다.

제2절 최근세 이후 광양의 한문학(시) 개요

광양이 고려시대에는 3대 광종(光宗)때 첫 과거에 김책(金策)이 등제(登第)하여 광양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중앙 진출의 초석(礎石)을 다졌다. 그 뒤로 명관으로는 김양감(金良鑑) · 김약온(金若溫) · 김의원(金義元)과 대문장가로는 김황원(金黃元)이 있었으며 고려말까지 명신으로 이무방(李茂芳)이 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적막감마저 없지 않았다.

다행히 조선중기에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가 굴기(掘起)하여 호남삼